

공동체 기억보존센터로서의 도서관 운영 및 큐레이션 제공 방안 연구

A Study of the Plan for Library Operation and Curation Provision as a Community Memory Preservation Center

곽 우 정 (Woojung Kwak)*

노 영 희 (Younghee Noh)**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 삶의 기억 수집·보존·관리 체계 구축 지원이라는 정책 과제를 기반으로 지역별 역사·향토자료 콘텐츠 수집과 공유,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기억보존의 중심지로서의 도서관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원 및 지역기록관 등 지역 기반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는 기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 운영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도서관의 큐레이션 서비스 사례와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제안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원에서는 축제나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역주민의 예술 활동 사업 등과 같은 사회교육 측면에서의 외부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향토자료 조사 연구 및 발간을 비롯한 관리 업무까지 병행되어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정보서비스는 물론 문화프로그램 제공, 정보공유 공간 제공, 취약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상당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지역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도서관의 경우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방안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화원 및 각종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료 관리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도서관이 자료를 구축하고, 자료 이관이 어려운 자료가 많으며, 모든 자료를 도서관으로 집중하여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도서관과 지역 행정기관의 자료, 기타 유관기관, 개인의 자료를 모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언제든지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모으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esent the need for building the library as a hub of the community memory preservation which provides the collection, sharing, and curation services of the locality specific historical and local data based on the policy task, namely supporting the collection, pre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the community's life memory.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of data collec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of institutions serving regional-based materials such as cultural centers and regional archives was grasped, and the cases and status of curation services in librarie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discussion proposed vi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the culture center, external demand has been increased from the aspect of social education including festivals, cultural and art event, cultural and art educational business, art activities business of local residents and managerial business is to be carried out,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the culture center to manage its business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ollect and preserve regional various data at the public libraries playing various roles including provision of informative services, cultural programs and information sharing places to local residents and provision of services to vulnerable social group. As the existing libraries have a plan to collect data systematically, it is considered that those libraries will smoothly operate the data management through cooperation with existing culture centers and various cultural organizations. Second, it appears that a plan will be needed to set up all the data including the ones owned by libraries,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individuals and other competent agencies in online database so that they are easily available to the public and always available in the libraries because there are a lot of data which cannot be moved to other place and it is actually difficult to concentrate and set up all the data to those libraries.

키워드: 공동체, 기억보존센터, 큐레이션, 공공도서관, 향토자료
Community, Memory Preservation Center, Curation, Public Library, Local Data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수료(woojung2243@naver.com) (제1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0년 5월 20일 논문심사일자 : 2020년 6월 5일 게재확정일자 : 2020년 6월 11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2): 53-70, 2020.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0.31.2.053>

1. 서론

2019년 한국은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 지표 중 공동체(사회적 지원관계망, Perceived Social Network Support) 지표에서 38개국 중 29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압축 성장에 따른 급격한 개인화로 인해 공동체의 붕괴와 정치적 견해 차이, 일자리와 빈곤 등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박성현 2019). 공동체 붕괴라는 지역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 지점은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었다. 『도서관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도서관의 기본 기능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여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특히, 도서관 자료의 보존은 이용가능성의 장기적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자료의 파손을 지연·방지하거나 손상된 자료의 지적 내용을 보존하는 적극적이고 거시적인 업무'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도서관의 기본 기능에 더불어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지역사회의 정보를 담고 있는 향토자료·지역자료의 수집과 보존, 활용과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 도서관이나 행정기관 내 자료실 등에서 지역 내 향토자료와 지역자료의 유통과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도맡아 오기 시작하였다(이진민 2003). 하지만 향토자료와 지역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시민을 위한 체계 있는 수집과 정리는 도서관 한 개의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보 접근에 있어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었다. 유통/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은 도서관 및 지역 행정기관이지만, 향토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은 박물관, 문화원, 교육기관, 지역협회와 단체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이진민 200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서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을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내외에 산재 또는 유출된 한국 고문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문헌의 국가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하며,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지 않는 지역의 생활사 자료(삶의 기억)들이 도서관이 아닌 곳에서 열악하게 보관되고 있어 유실이 우려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쇠퇴 등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증가하고 있어 미래세대에 전해줄 지역의 다양한 삶의 기억들이 유실될 우려가 있어 공동체 자료의 아카이빙이 필요하다고 정의하였다(도서관정책기획단 2019).

경기도사이버도서관(2018)에서는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역 문화와 지역주민의 삶을 알아야 하며, 그 면면을 살펴보기 위한 매개체로 지역 자체에서 생산되는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 이러한 사회적 관심의 변화 시점에 발맞춰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을 위한 적극적 움직임을 보여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경기도메모리라는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과 미래세대에 전승을 통해 경기도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4월에 2019년 공공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주요 향토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참여기관을 모집하였다. 디지털화 지원을 통해 국가 지식문화 유산을 보존·전승·공동 활용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보도자료 2019).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적 도시혁신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공동체의 삶과 기억이 담긴 생활문화·향토자료의 보존 가치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전국 공공도서관이 소장한 주요 장서 디지털화를 통한 지식문화유산의 보존과 공유를 위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공동체 기억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집약하고 폭 넓게 전파함으로써 지역문화유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동안 향토자료 및 지역자료에 대한 도서관과 향토원, 박물관 등 관련 기관의 디지털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해 몇몇 연구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도서관에서 보유 중인 자료에 대해 큐레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향토자료와 지역자료 정보가 각 기관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집합되지 않아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토자료와 지역자료의 중앙기관이 되어서 공동체 기억보존센터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큐레이션 서비스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 삶의 기억 수집·보존·관리 체계 구축 지원이라는 정책 과제를 기반으로 지역별 역사·향토자료 콘텐츠 수집과 공유,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기억보존의 중심지로서의 도서관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근대 국가의 수립과정에서부터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체성 형성에 연결되는 중요한 일이었다. 기억은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행위이며,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기억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할 수 있고, 이렇게 과거에 경험한 것이 어떤 형태로 간직되었다가 나중에 재생 또는 재구성되어 나타나는 현상인 기억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로 기능한다. 기억은 개인의 영역을 포함하여 사회적·집합적·공공적 기억으로 구분되는 등 단순한 정신활동을 넘어선 사회적 행위이기도 하다(김소희 2016). 역사는 단순히 시간이 모여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각의 사건들에 부여하는 의미 체계로 만들어짐에 따라서 특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한 가치나 문화 세계관이 역사에서 창출 및 공유되며, 전승된다. 과거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행하는 집합적 기억과 경험을 통해서도 현재 시점에서 재해석된다. 일상 속에서 형성된 사회의 관습이나 의례, 문화를 일컬어 사회적 기념행위라 한다. 사회는 집단적 기념행위를 통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의미를 재생산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기에 앞서, 국내의 기록물관리기관과 도서관의 협력방안에 관한 논문과, 지방기록물관리에 대한 연구, 대학의 기록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등 유형에 따른 기록관리기관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도서관을 단일로 하여 공동체 기억보존센터나 기록물관리기관과 같은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는 연구는 보

이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서관이 지역의 총체적인 기억보존센터의 공간적 기능과 서비스를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의 기록관과 도서관과 연계된 라키비움 형태의 기록관 협력 방안과 같은 선행연구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역사·향토자료 콘텐츠 구축 및 활용을 주제로 한 관련 연구를 지역 첫째, 향토 및 지역자료 운영 및 구축에 관한 연구, 둘째, 도서관과 기록관 등 유관 기관의 협력에 관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역별 역사·향토자료 콘텐츠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로는 이진민(2003)은 공공도서관 향토자료·지역자료 운영에 관한 연구를 통해 향토자료 및 지역자료를 수집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기반 자료의 수집, 정리, 개발, 봉사, 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향토, 지역자료 운영 시 운영 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원(2011)은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서 지역기록 보존에 대한 인식이 아직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은 우리의 조건에서는 우선 지역 내 공공기관이나 발굴가능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역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공동체들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드물어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아카이브를 만드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심상민(2013)은 신라문화콘텐츠를 체계화하여 신라문화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의 선도적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구축 사례분석과 신라문화 콘텐츠 범주화와 플랫폼 구축

방안,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방안 연구, 플랫폼 구축 후 운영과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도서관과 기록관 등 유관 기관의 협력에 관한 연구로, 한희정, 육해인, 오유진, 김용(2014)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은 유사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 측면에 있어서 이상적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효과적 연계를 통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창출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교수설계모형인 ADDIE모형을 이용한 기록관과 도서관 박물관의 협업 교육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였다. 김민경과 이성신(2014)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록관과 도서관, 그리고 박물관의 업무기능과 공간 기능을 분석하고 공간 협력 방안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모형의 검증을 위해 기록연구사와 사서, 학예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것을 토대로 다시 세 기관의 공간기능에 대한 협력 수정모형을 설계하였다. 최영실과 이혜영(2012)은 문서, 도서, 영상 정보 등 정보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한 기관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요구와, 많은 수의 박물관에 비해 기록관은 부족한 현재의 상황, 그리고 공공도서관 기능 확대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하여 지방문화역사센터로서의 통합적 기능을 갖춘 라키비움 형태의 협력기관설립을 주장하였다. 또한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요건을 비교·분석하여 각 기관들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한 유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라키비움의 기능 계획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도 김지영(2012)은

기록이용의 증가와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 이용자 만족도 상승으로 인한 기록관 인식의 변화, 기록관과 도서관이 가지는 가치의 상승 등을 기대효과로 주장하며 기록관과 도서관의 협력 방안과 모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의 문서, 도서, 영상 정보 등 정보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도서관이 지방문화역사센터로서의 통합적 기능을 갖춘 기관으로서 발전하기 위한 수집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연구설계 및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기록(향토자료, 지역자료 등)을 보존하기 위해, 지역의 기록을 공동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공동체 기록보존센터로서의 도서관 구축 필요성을 기반으로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기록보존센터로 도서관에서 지역 주민, 향토·역사 등을 지역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문화원 및 지역기록관 등 지역 기반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는 기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 운영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 도서관에서 수집·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범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기억보존센터의 기능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역 거점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지역시민, 연구자, 행정기관 등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큐레이션 서비스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관의 큐레이션 서비스 사례와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자료 조사는 온라인 조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한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지방문화원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또한 도서관의 향토자료 서비스 현황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였다. 다음의 분석 내용을 통해 지역 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국내 도서관에서의 향토자료, 지역자료에 관한 큐레이션 서비스를 실행한 사례와 동향을 파악하여 공공도서관이 공동체 기억보존센터로 많은 양의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큐레이션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그림 1〉 참조).

도서관에 공동체 기억보존센터 기능을 구축하고, 지역 시민 및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구축된 자원을 적절하게 큐레이션 서비스 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에 있어, 관련 논문과 관련사이트, 그리고 실제 운영사례들을 망라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기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으며 논의부분에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질문 1: 공동체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도서관의 역할과 필요성은 무엇이고, 지역 거점 도서관에 공동체 기억보존센터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단계	연구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선행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원 지역 향토자료 수집·보존 연구 ● 도서관의 지역 기반 자료 수집·보존 연구 ● 지역 거점 기록보존 관련 연구
<p style="text-align: center;">현황 및 사례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원 및 지역 기록관 관련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원 및 지역기록관 등의 지역기반자료 수집·제공 관련 현황 조사·분석 ● 도서관 향토자료 및 지역자료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에서 수집·제공하는 지역기반자료 관련 현황 조사·분석 ● 큐레이션 구축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기반자료 관련 큐레이션 서비스 도서관 현황 조사·분석 ✓ 문화원 및 각종 유사기관 큐레이션 동향 조사·분석
<p style="text-align: center;">결론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기억보존센터 역할 및 구성 시 필요 요소 제시 ● 공동체 기억보존센터 기록 보존 및 제공 방안 제시 ● 공동체 기억보존센터에서 제공해야 하는 큐레이션 서비스 방안 제시

〈그림 1〉 연구절차 및 연구내용

- 연구질문 2: 지역 도서관에 공동체 기억 보존센터의 기능을 부여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도서관들은 구체적으로 지역의 기록(기억)을 어떤 방식으로 보존하고 제공하고 있는가?
- 연구질문 3: 공동체 기억보존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큐레이션 서비스 할 경우, 어떤 방식을 활용하였을 때 효과를 낼 수 있는가?

4. 현황 조사·분석

도서관이 지역의 기억보존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또 다른 기관인 문화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화원의 보존 공간 및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의 현황 분석을 통해, 도서관이

지역의 기억보존 기관으로의 역할 수행에 있어 더 적절한 기관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문화원 및 지역 기록관 현황 분석을 진행하고, 도서관의 향토자료 보존 현황을 분석하였다.

4.1 문화원 및 향토자료 도서관 현황

1) 문화원 현황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 8조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의 사업 중에 하나로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역마다 산재해 있는 지방문화원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발간한 자료, 지역 기록 자료, 향토자료 등 다양한 지역 기반 자료를 수집·발굴하고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2018)과 한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 소개에서는 전국 지방문화원이 총 231개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지방문화원은 지역 시군구 관할 구역별로 1개 이상의 지방문화원을 두고 있으며, 각 시도별 연합회가 1개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2012년에 출범하여 지역의 역사가 비교적 짧아 문화원이 1개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나타났듯이 지방문화원은 231개로 한 개의 시도에 많은 문화원이 있어 자료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공해줄 수 있는 허브 기능의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통계에는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 기타 등의 공간 현황과 인력 현황이 제시되어 있는데, 지방문화원의 기록 관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방문화원 도서실 실태 조사와 인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인력은 기본적으로 사무국장, 직원, 기타(공무원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문화원은 모두 1명의 사무국장을 두고 있으며, 직원은 전국 평균 3명의 인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지역에는 직원이 평균 1~2명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기록을 보관하고 지역 문화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지방문화원이 전국 231개 가운데 100개의 지방문화원만이 도서실을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록을 보존하고 공유할 공간의 부재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표 2〉 참조).

지방문화원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지방문화원 시설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지방문화원은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 5개 시설 가운데 3개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야만 지방문화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놓고 있는데, 전국문화기반 시설 총람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화원이 문화원의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도서실을 필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지방문화원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도 1965년 제정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서 제시되었던 기준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이지만, 5개의 기본 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방문화원이 전체 3분의 1에 불과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기 어려운 실정임이 조사되었다(최영화 2014).

지역의 기록물과 기록정보, 향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보존하는 공동체 기억보존센터를 계획하기에 앞서, 현재 지역 향토자료를 포

〈표 1〉 전국 지방문화원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5	15	8	10	5	5	5	1	31	18	11	16	14	22	23	20	2	231

출처: 한국문화원연합회, <http://kccf.or.kr>

〈표 2〉 전국 지방문화원 인력 및 시설 현황

시·도	평균 합계	인력 현황				도서실	
		사무국장	직 원	기타	계	면적(m ²)	보유현황
서울특별시	평균	1	3	2	4	79	-
	합계	25	73	12	110	315	4
부산광역시	평균	1	2	2	3	277	-
	합계	15	24	4	43	831	3
대구광역시	평균	1	2	0	3	76	-
	합계	8	12	0	20	76	1
인천광역시	평균	1	4	0	5	90	-
	합계	10	36	0	46	180	2
광주광역시	평균	1	1	0	2	0	-
	합계	5	6	0	11	0	0
대전광역시	평균	1	4	0	5	232	-
	합계	5	18	2	25	695	3
울산광역시	평균	1	4	0	5	124	-
	합계	6	22	0	28	124	1
세종 특별자치시	평균	1	5	0	6	788	-
	합계	1	5	0	6	788	1
경기도	평균	1	4	0	4	112	-
	합계	31	106	0	137	1,347	12
강원도	평균	1	3	1	4	59	-
	합계	18	55	1	74	475	8
충청북도	평균	1	2	2	3	65	-
	합계	11	15	4	30	388	6
충청남도	평균	1	3	0	3	100	-
	합계	15	40	0	55	1,194	12
전라북도	평균	1	1	3	3	90	-
	합계	14	18	8	40	806	9
전라남도	평균	1	2	1	3	127	-
	합계	22	40	5	67	1,393	11
경상북도	평균	1	2	1	3	79	-
	합계	23	43	1	67	1,347	17
경상남도	평균	1	1	1	2	99	-
	합계	20	25	2	47	992	10
제주 특별자치도	평균	1	3	0	4	0	-
	합계	2	5	0	7	0	0
계	평균	1	3	1	4	141	-
	합계	231	543	39	813	10,951	1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8 전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표 3〉 지방문화원의 문제점

문제점	문제점 내용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역사와 문화,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문화 정체성 함양 프로그램, 단계별 심화 과정 마련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실천 과제 도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문화예술 활동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문화원과 협업 가능한 회원, 강사, 조직 양성 - 교육의 의의, 동아리 조직의 필요성 등 내·외부적 가치 확립 필요 향유자들이 역량을 축적하고 강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 방법 마련 지역 문화 자료수집 및 기록을 위한 인적 자원 미확보, 사업비 부족
지자체, 위탁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소통구조의 혼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요인에 따른 수동적인 지자체 사업 수탁으로 문화원 고유사업에 대한 집중도가 결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원 비전과 정체성에 부합한 사업을 선별할 수 있는 체계와 소통구조 마련 - 지자체와 수평적 파트너로서의 위상 회복 필요 위탁기관 지원 업무의 비중 확대에 따른 문화원 업무 효율성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회계 등 위탁 기관과의 역할 분담 필요 - 지휘 체계의 혼선과 의사결정 절차의 비효율성
홍보 전담인력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 전담인력의 부재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홍보의 한계 지역 유관 기관과의 홍보 협력 체계 미비, 홍보처 개발 노력 부족
내부 인적자원 강화를 위한 체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원 영입을 위한 객관적 장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원의 정체성과 목적에 부합한 임원 선출 제도 필요 분야별 전문가집단 조직 및 연구 활성화 방안 개발
조직 비전의 부재와 내부 공통가치 창조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과 미션, 운영을 위한 전략목표 공유 필요, 관련 법, 제도 실효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정책에 부합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문화원 고유의 비전과 미션 수립 필요 내부 인력 업무 만족도 저하, 높은 업무강도(위탁시설 업무과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과 문화예술을 매개하는 내부인력의 직무교육, 자기개발 부족 - 조직문화 개선, 업무의 효율성과 가치, 사명감 증대 필요
문화원 활동과 사업을 위한 공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원 사무국 및 사업실행 장소의 잦은 변동으로 장소적 정체성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산문화원에 대한 장소적 정체성 부재로 문화원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 문화예술동아리 및 부문별 소모임 활동 지원 공간 요구 불응

출처: 학산문화원, 미디어교육연구소, 2012, 학산문화원 '환골탈태' 전략, 인천: 학산문화원.

함한 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사례를 살펴본다. 학산문화원(2012)은 문화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지하고, 향후 문화원이 지역문화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을 진행하였다. 이 때 지방문화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는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자체 소통구조의 혼선, 인력 부족, 공간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원에서는 지난 70년간 전국 231개의 지방문화원이 수집·관리하고 있던 향토문화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고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보유한 책자, 시청각 자료, 박물관, 도안 등의 향토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정보를 전자화하고 있다.

2) 도서관 향토자료 및 지역자료 현황
향토자료(Local Collection)란 “도서관이 위치한 특정지역에 관한 도서, 지도, 삽화 및 기타

자료 일체”로 도서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관한 자료 및 지역에서 출판되는 단행본, 신문, 잡지, 필사본, 시청각자료, 민속자료, 고문서를 비롯한 각종 문서, 지방소재 기업체 및 단체의 간행물과 이들에 관한 자료를 의미한다(한국도서관협회 2010).

지역 도서관에서 지역의 역사자료, 향토자료 등을 수집·보존하기 위해, 현재 향토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을 조사·분석하였다. 향토자료를 제공하는 도서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의 모든 도서관의 사례를 분석하기에 범위가 넓고 도서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향토자료의 범위가 달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참고정보서비스인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지식정보DB의 답변을 참고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지식정보DB에서는 국내에 향토자료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경주시립도서관, 대구서부도서관, 수원 선경도서관, 인천 화도진도서관, 부산중앙도서관 등이 나타났다. 물론 이외에도 국내에는 향토자료와 지역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도서관이 추가적으로 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의 기준을 토대로 5개의 도서관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도서관에서의 지역 자료(향토자료 포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도서관의 지역자료 수집 대상, 수집 규모, 서비스 범위, 이용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수집대상은 도서관마다 차이가 있는데, 경주시립도서관은 지역 정체성과 관련된 족보 자료 등을 중심으로 수집하고 있었으며, 대구서부도서관은 지역 출신 문인의 창작자료, 육필원고 등과 같은 문인자

료를 수집하고 있었다. 수원선경도서관은 포괄적인 향토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화도진도서관과 부산중앙도서관은 근대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 수집 규모는 도서관마다 차이가 나타나는데, 대구서부도서관, 수원선경도서관, 인천화도진도서관에 비해 경주시립도서관과 부산중앙도서관은 도서, 비도서 등을 포함해도 더 적은 양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다. 서비스 범위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도서관 내부에서 자유관람 및 열람이 가능하였고, 경주시립도서관과 수원선경도서관, 인천화도진도서관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열람 및 원문 제공을 함께 병행하고 있었다.

현재 향토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향토자료 수집 기준과 대상을 파악하고, 수집 현황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고문헌, 일반도서, 필사본, 잡지, 지도, 지역 발간 자료, 지역 출신 인물에 관한 자료, 지역의 성장 및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 지역 작가 작품 등을 기반으로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자료의 규모는 도서관마다 수집 자료와 분야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규모를 동일한 수치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보유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유사한 경주시립도서관과 수원선경도서관의 경우를 비교해 보았을 때, 향토자료의 경우, 수원선경도서관이 경주도서관보다 약 3~4배 정도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서나 족보자료 등은 경주시립도서관이 더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공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향토자료의 디지털화를 진

행한다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도서관이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서비스범위는 대부분 도서관이 향토자료실을 구축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관내 열람 체계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디지털 자료로 이용 가능하게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4.2 큐레이션 구축 현황

도서관의 큐레이션은 주로 콘텐츠의 수집 또는 분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선별하여 용이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향후의 추천 서비스 활용을 위한 목적이 강하다(한국전문도서관협회 2019). 국

내·외의 도서관 큐레이션 구축 현황은 한국전문도서관협회(2019) 자료를 인용하여 재구성하였다. 국내에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서관 및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등이 있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컬렉션이라는 명칭의 큐레이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컬렉션은 소장 구축 원문자료 및 전문 연구기관의 소장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의 디지털 자료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지식정보자원의 공유와 활용 측면에서 소장자료 중 가치 있고 독창적인 디지털 정보자원을 큐레이션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컬렉션은 디지털 서고, 키워드 큐레이션, 전시 컬렉션 3개 파트로 나누어 운영 중이다.

〈표 4〉 지역 자료(향토자료 포함) 관리 공공도서관 현황

도서관명	수집대상	규모	서비스범위	이용대상
경주시립도서관	경주 관련 각종자료 경주정체성 족보 자료	향토자료: 1,953권 고서: 2,677권 족보자료: 72성 905종 3,168권	향토자료실 운영 족보자료관 시스템 운영을 통한 인터넷 열람 제공	경주시민 일반이용자 연구자 등
대구서부도서관	향토문인자료(대구, 경북 문인의 창작자료, 향토문학인의 저서, 육필원고 등)	도서: 16,010권 육필원고: 407건 동인지: 1,922건 기타 사진 및 이미지: 38건	자유관람 및 자료 열람 관외대출가능(전시자료, 동인지, 육필원고 제외) 향토문학기행, 해설이 있는 향토 문학관 운영 등 프로그램 제공	지역주민 향토문학인
수원선경도서관	수원학 자료(향토자료, 고서, 족보, 개인문고)	향토자료: 7,270건 고서: 1,681권 족보: 914건 개인문고: 4,506건 성곽자료: 1803종 / 452권(접)	수원학 자료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및 수원 e-book 자료 홍보관: 수원학 원 문 DB 자료 제공	수원시민 일반이용자 연구자 등
인천화도진도서관	향토·개항자료	도서: 9,158권 비도서: 1,663건	자료관 및 전시관 운영 향토·개항문화자료관 홈페이지 운영(온라인 전시, 원문DB 제공)	인천시민 일반이용자 연구자 등
부산중앙도서관	부산근대사진자료 부산향토자료(부산시 및 각 지자체 발간 자료와 연구보고서, 부산관련 자료 등)	부산자료: 4,946 사진자료: 17집, 67(액자형태)	관내 열람	부산시민 일반이용자 연구자 등

〈표 5〉 국내외 도서관 큐레이션 사례

번호	도서관	명칭	사례
1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디지털화 자료 중 가치 있는 지식문화자원을 선별, 콘텐츠로 구축하여 제공
2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포털 PO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공공기관, 정책결정권자, 정책연구자 등이 필요로 하는 정책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 국내외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정책정보 제공 • 공직자의 정책수립활동 지원 및 일반 국민에게 정책관련 정보 제공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학술지를 정부기능별로 분류하여 목록 제공 • 공직자가 관심분야의 학술지를 신청하면 주기별 목차정보 제공 • 해당 신간호 목차정보를 보고 원문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복사 및 전자배송서비스 제공
3	McGill 대학도서관	Digital exhibitions & colle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cGill 대학도서관은 소장하고 있는 희귀본들을 큐레이션하여 오프라인 전시를 개최하면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공간 상에서도 함께 큐레이션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현재 총 24개 주제의 큐레이션 콘텐츠 소개 • 디지털 큐레이션 사이트를 구축할 때 디지털 전문 팀과 협력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계획 단계에서 물리적 전시 이벤트 개최 시 온라인 큐레이션을 함께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 • 기획을 통해 큐레이션할 콘텐츠가 정해지면 디지털 팀에서 디지털 이미지 제작을 수행하고, McGill 도서관이 직접 개발한 SQL 데이터베이스와 루틴을 사용하여 웹사이트에 나타낼 메타데이터를 작성
4	Boundless	Boundl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 예술, 생물학, 경제, 화학, 커뮤니케이션, 영어, 역사, 수학, 물리학, 정치과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주제별로 고등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큐레이션한 사이트 • 각 주제별로 정보원에 대한 소개를 수록하고, 상세 주제별 콘텐츠를 한 눈에 사이트맵 형태로 볼 수 있어 전체 자료에 대한 개략적인 파악을 용이하도록 해 줌 • 소주제별 콘텐츠 링크를 클릭하면 텍스트, 이미지, 슬라이드 자료 등 여러 형태로 구성된 교육 자료를 열람 가능

출처: 한국전문도서관협회, 2019. 디지털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사례조사 및 서비스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재구성

국립세종도서관은 정책 정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각 주제별로 한 달에 한 번 씩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주제에 대한 2~3줄의 정보와 함께 자료유형별로 관련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국외의 디지털 콘텐츠 큐레이션에 관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McGill 대학도서관과 Boundless서비스가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 참조).

5. 공동체 기억보존센터로서의 도서관 운영 및 큐레이션 제공

2016년 지방문화원 중 자료관리 인력이 있는 곳은 4.8%, 아카이빙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 문화원은 16.7%로 자료관리 취약으로 인해 자료의 소실 위기에 처해져 있다. 문정희와 장우권(2008)은 전남지역의 지방문화원 현황을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에 따르면, 사무

국장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임직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다른 직업과 겸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문화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인원은 사무국장과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직원수가 2.4명으로 소수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문화원에서는 축제나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역주민의 예술 활동 사업 등과 같은 사회교육 측면에서의 외부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향토자료 조사 연구 및 발간을 비롯한 관리 업무까지 병행되어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정보서비스는 물론 문화프로그램 제공, 정보공유 공간 제공, 취약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상당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지역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도서관의 경우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방안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화원 및 각종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료 관리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1) 지역 거점의 공동체 기억보존 역할 수행

현재 역사자료와 지역의 기록물은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적 가치가 상품으로 연결되어 지역에 수익을 불러다 주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의 역할을 하고 있다(최정은 2010). 도서관은 지역의 역사의 기록화가 가능한 지역 공동체 내 특정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서화, 시각화, 구술 등의 형태로 생산된 기록을 공동체 구성원 간에 아카이브로써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장윤이(2014) 연구에서 박물관은 기록학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박물관학적 관점의 유물로 관리하고 있어 보존을 위한 수장고 시설과 향온·항습기, 공기청정기 등을 선치하는 등 보존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표준유물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박물관으로서 충실한 유물관리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으나,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유물의 내용공개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에 제한이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인 도서관에서 기록물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도립도서관 연구에 따르면, 지역 자료의 경우 지방 행정기관과 도서관, 박물관의 망라적 수집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및 개인 소장품에 대해서도 수집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 문화원에서는 자료의 관리와 공간이 부족하여 공공기관 문고 자료실 등을 대상으로 자료 이관 검토를 진행하여야 하며, 지역납본체제를 마련하여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기억보존의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다양한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 자료 수집

공동체 기억보존센터는 향토자료의 정기적 수집과 보존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 자료의 수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도립도서관 ISP 전략 연구(2015)에서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 자료 수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해당 연구에

서는 도서관에서 물리적으로 향토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 내 발간물에 대한 적극적 수집과 DB 구축, 둘째,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연계를 통한 문화자원 수집 및 원문 DB구축, 서비스, 셋째, 고문헌 및 족보 등 보존 가치 있는 자료에 대한 원문 DB 구축, 서비스 넷째, 지역 자료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망라적 수집(사진, 영상, 녹음자료, 지도, 구술자료 등) 다섯째, 지역의 행정·역사·문화·사회 전반에 관한 기록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여 고품질 지식정보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도서관이 자료를 구축하고, 자료 이관이 어려운 자료가 많으며, 모든 자료를 도서관으로 집중하여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도서관과 지역 행정기관의 자료, 기타 유관기관, 개인의 자료를 모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언제든지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모으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도서관이 지역 거점 기억보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관련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도서관이 지역의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목적과 역할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정보요구를 수용하고 봉사 대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봉사하여야 한다(이진민 2003).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기록보존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지역 고유의 자료, 향토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점점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 자료의 경우 개인, 기관, 단체 등 다양한 개인 및 집단이 보유하고 있어 그 목적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도서관이 지역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자료를 직접 구축할 뿐만 아니라, 지역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현황 분석을 통해 지방문화원, 박물관 등이 아닌 도서관에서 기억보존센터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지방문화원 중 자료관리 인력이 있는 곳은 4.8%, 아카이빙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 문화원은 16.7%로 자료관리 취약으로 인해 자료의 소실 위기에 처해져 있다. 그러나 도서관의 경우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방안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화원 및 각종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료 관리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유물의 내용공개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에 제한이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인 도서관에서 기록물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이 공동체 기억보존센터로서의 역할을 제안하고 도서관이 수집 및 구축한 정보를 기반으로 모든 이용자가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큐레이션 서비스 방안 정도로 제안을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직접적인 정보 구축 방안 및 큐레이션 서비스 구축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공동체 기억보존센터로서의 도서관 구축에 관한 제안은, 현재 도서관에서 사서들이 담당하는 업무의 과중함이 드러

나고, 문화원이나 문화기관의 역할까지 도서관에서 담당을 하려면, 이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 실현 가능한 구체화된 항목의 도출을 보다 발전시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보도자료, 2019. 전국 공공도서관 향토자료 디지털화 해드립니다. [online]. [cited 2019.9.26].
<https://www.nl.go.kr/nl/commu/libnews/article_view.jsp?board_no=10034&site_code=nl¬ice_type_code=3¤tPage=0&srch=&searchWord=&cate_no=0>.
- 김민경, 이성신. 2014.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공간 협력 방안.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7(1): 1-24.
- 김소희. 2016. 『사회적 기억의 보존을 위한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영역 확장 연구 - 기념일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 김지영. 2012.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록관, 도서관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정보과학(기록관리학).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세종: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2012.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 건립 타당성 연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8 전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성현. 2019. 한국인의 삶의 질, 통계적 지표에 의한 현황과 개선 방향. 『학술원논문집(자연과학편)』, 58(1): 89-109.
- 비알네트콤. 2016. 『충청남도 도립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연구용역. 충청남도: 충남도서관.
- 설문원. 2011.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3-43.
-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2018. 『경기아카이브총서 1 지역 기록자를 위한 아카이빙 길잡이: 관리편』. 경기도: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이진민. 2003.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지역자료 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장윤이. 2014. 인천의 근현대 역사기록물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방법 연구. 『인천학연구』, 20: 147-192.
- 최영실, 이해영. 2012.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융합한 라키비움의 기능 계획.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1): 457-477.
- 최영화. 2014. 『충남 지방문화원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공주: 충남발전연구원.
- 최정은. 2010. 『지방 역사기록물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방안: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학산문화원, 미디어교육연구소. 2012. 『학산문화원 ‘환골탈태’ 전략 - 문화원의 비전과 조직발전 기본 계획 연구』. 인천: 학산문화원.
- 한국도서관협회, 문헌정보학용어사전편찬위원회 편. 2010.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전문도서관협회의회. 2019. 『디지털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사례조사 및 서비스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대전: 한국전문도서관협회의회.

[법령]

- 『도서관법』 제2조 1항. [online]. [cited 2019.9.26].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C%84%9C%EA%B4%80%EB%B2%95/\(13960,20160203\)](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C%84%9C%EA%B4%80%EB%B2%95/(13960,20160203))〉.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online]. [cited 2019.9.26].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B%AC%B8%ED%99%94%EC%9B%90%EC%A7%84%ED%9D%A5%EB%B2%95%EC%8B%9C%ED%96%89%EB%A0%B9>〉.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online]. [cited 2019.9.26].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B%AC%B8%ED%99%94%EC%9B%90%EC%A7%84%ED%9D%A5%EB%B2%95>〉.

[웹사이트]

- 경주시립도서관. [online]. [cited 2019.9.26]. 〈<http://library.gyeongju.go.kr>〉.
- 국립세종도서관. [online]. [cited 2019.9.26]. 〈<https://sejong.nl.go.kr>〉.
- 국립중앙도서관. [online]. [cited 2019.9.26]. 〈<https://www.nl.go.kr>〉.
- 대구서부도서관. [online]. [cited 2019.9.26]. 〈<http://library.daegu.go.kr/seobu>〉.
- 부산중앙도서관. [online]. [cited 2019.9.26]. 〈<http://www.joonganglib.busan.kr/newhome>〉.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지식정보DB. [online]. [cited 2019.9.26].
〈<https://www.nl.go.kr/NL/contents/N3050100000.do?page=1&viewCount=10&schFl>〉.

d=0&schStr=%ED%96%A5%ED%86%A0%EC%9E%90%EB%A3%8C&schM=view&ackRecKey=5645195>.

수원선경도서관. [online]. [cited 2019.9.26]. <<https://www.suwonlib.go.kr/sk>>.

인천화도진도서관. [online]. [cited 2019.9.26]. <<https://lib.ice.go.kr/hwadojin>>.

한국문화원연합회. [online]. [cited 2019.9.26]. <<http://kccf.or.kr>>.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R Netcomm, 2016. *Research Servic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hungcheongnam-Do Provincial Library's Information Strategy Plan*. Chungcheongnam-Do: Chungnam Library.
- Choi, Jung-Eun, 2010. *The Strategies for Building Online-Archive of Local Historical Records: Focusing on Incheon City*. M.A. thesis,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Records Management.
- Choi, Younghwa, 2014. *Chungnam Regional Cultural Center Operation Status and Development Plan*. Gongju: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 Choi, Youngsil and Hae-young Rieh, 2012. "Functional Planning of Larchiveum that Integrates the Functions of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Journal of The Korean Bbilia Society for Llibrary and Informaion Science*, 23(4): 457-477.
- Haksan Culture Center and Media Learning Institute, 2012. *Haksan Culture Center 'Perforation' Strategy-Research of the Cultural Center's Vision and Basic Plan for Organizational Development*. Incheon: Haksan Culture Center.
- Jang, Yuni, 2014. "Study on the Construction Method of Digital Archives of Modern archives in Incheon." *The Journal of Incheon Studies*, 20: 147-192.
- Kim, Ji Young, 2012. *A Study on A Method to Cooperate Archives and Library for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M.A.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Informaion Science.
- Kim, Minkyung and Seongsin Lee, 2014. "The Collaborative Workplace among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The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Research*, 7(1): 1-24.
- Kim, Sohee, 2016. *A Study on the Expanded Range of Identity Design for Preserving Social Memories: Focusing on Anniversary Identity*. M.A.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Faculty of Design, College of Fine Art.
- Korea Special Library Association, 2019. *Digital Content Curation Service Case Study and*

- Service Plan Study Result Report*. Daejeon: Korea Special Library Association.
- Lee, Jin-Min. 2002.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Local/Community Information in Public Libraries*. M.A.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Constructing a Regional Preservation Library*.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2018 National Cultural Infrastructure Overview*.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National Library Press Release. 2019. *We will digitize Local Materials in Public Libraries across the Country*. [online]. [cited 2019.9.26].
<https://www.nl.go.kr/nl/commu/libnews/article_view.jsp?board_no=10034&site_code=nl¬ice_type_code=3¤tPage=0&srch=&searchWord=&cate_no=0>.
- President's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19. *The Third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2019-2023)*. Sejong: President's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Seol, Moon-Won. "Building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for Documenting Localiti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2): 3-43.
- The Institute of Archiving Network. 2018. *Archiving Guide 1 Archiving Guide for Regional Recorders: Administration*. Gyeonggi-do: Gyeonggi-do Cyber Library.